

폭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

- ◆ “내 집 앞, 내 동네 눈 내가 먼저 치우기” 운동을 실천합시다.
- ◆ 독거노인·거동불편자·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훈훈한 인정을 베풀어 줍시다.
- ◆ 동절기 시민생활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존경하는 시민여러분!

“경인년(庚寅年)” 새해를 맞아 시민여러분 모두가 희망찬 마음으로 새 출발을 시작해야 하는 즈음에, 37년 만에 내린 폭설로 인해 도로는 마비되었고, 시민의 발은 눈길에 묻혀 평소의 인력과 장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
먼저 큰 불편을 겪고 계신 시민여러분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

사랑하는 시민여러분!

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인천시의 전 공직자들이 불철주야 대대적인 제설작업 현장에 참여하였으나, 아직까지도 이면도로와 언덕길, 뒷골목,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잔설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.

이번 제설현장에 참여해 주신 시민사회단체, 자원봉사자, 학생, 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,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께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이와 같은 재해는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언제든지 더 큰 재해나 시련으로 닥쳐 올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.

이렇듯 전 시민이 설해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더욱 힘들어 하신 독거노인분 등 우리 이웃의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.

존경하는 시민여러분!

금번 폭설피해에 대처하면서 나타난 미흡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강하여 “유비무환(有備無患)의 재난 안전 대책”을 완벽하게 수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그리고, 금번 설해와 한파로 인한 수도관 동파 피해 발생시에는 상수도사업본부(☎720-2114)로, 쓰레기로 인한 불편사항 발생시에는 시청 자원순환과(☎440-3560) 또는 각 군·구청 청소과로, 오수·분뇨·정화조 피해 발생시에는 시청 물관리과(☎440-3630) 또는 각 군·구청 환경·위생과로 신고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시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

2010년 1월
인 천 광 역 시